

# “현직 프리미엄 흔들, 민주당 내 싸움되나”

## 6·13 지방선거, 누가 뛰나

⑤ 인천시장

역대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자리는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10년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3선 도전에 나섰다. 송영길 후보에게 8%대 차이로 패했다. 그러나 2014년 치러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49.95%를 획득, 송영길 후보를 제치고 새 시장에 당선됐다.

인천시민의 민심이 당시 정국상황에 따라 항상 요동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 ▲민주당 후보군 강세, 최근 지지율 반영된 듯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올해 선거에서는 또다시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의 주요 후보군 인기가 높은 여당 지지율에 편승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박남춘 의원(남동갑), 윤관석 의원(남동을),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군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 등 야당 후보군들을 밀쳐잡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민주당 후보군 4명 모두 야당 후보군들과의 가상대결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장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경선은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내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1위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박남춘 의원,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윤관석 국회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내 인천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 유정복 시장 낮은 정당 지지율로 고전 예상

### 민주당내 홍미영·박남춘 등 여론조사 강세

선언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저서 ‘사람 사는 세상이 온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뭍이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인천시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남춘 의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선거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현직 시장 프리미엄, 못 누리나

이번 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선 도전은 확실한 상황이다.

그의 이런 행보에 맞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경선 없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시장은 “선거와 관련된 시기적으로 공천이 논의되는 시기는 아니다. 우선 시장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출마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단 선거운동 기간이 공식화되는 오는 5월 31일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고 이후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유정복 시장은 경기도 김포에서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유 시장의 재선은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율에 등에 업은 소속 후보군들은 유 시장의 지지율을 압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유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인천시장 후보로는 국민의당의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미지수다.

윤정일 기자 yunji@

# 골목활성화·일자리 창출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서울시, 용산구 성북구 등서 시범운영

서울시가 골목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구와 성북구 등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역사문화적 숨길 보존 ▲낙후된 환경개선 ▲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8월 착수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달쯤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5월까지 골목길 현황과 추진대상, 방향 등이 담긴 골목길 재생사업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용산구와 성북구 등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골목길이 자연지형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jhn@

#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서 ‘손뼉’

대우건설 4분기 실적서 해외손실 발견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인수전에 서 철수키로 했다.

8일 금융권과 IB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KDB산업은행 및 매각 주관사에 대우건설 인수 추진을 중단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당초 대우건설의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 보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4분기 실적에서 3000억원 규모의 해외 손실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호반건설 내부에선 무리한 인수는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우건설은 최근 지난해 4분기 모로코 사파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3000억원의 잠재 손실을 입은 것으로 공시했다. 공시 전까지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매각 주관사도 이를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의 모로코 현장 외에 다른 해외 사이트에 서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인수전에 서 발을 뺀 것으로 보고 있다. 탄탄한 현금 보유능력이 있는 호반건설 입장에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호반건설이 협상테이블에서 물러나도 양측이 양해각서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시공능력평가 13위인 호반건설은 지난 1월 31일 시공 3위인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호반건설은 채권단 보유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약 1조6000억원에 인수할 예정이었다.

조정훈 기자

## 1면서 계속 올 4월부터 컨버터 내 외장 LED램프...

하지만 내장형 램프의 경우 올해까지 역률이 0.9 이하이면 최고 3등급, 내년 부터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컨버터 외장형의 경우 100시간에 이징용 컨버터를 제공하고, 효율은 컨버터를 제외한 램프 효율만 따져 등급이 매겨진다.

김 차장은 효율등급제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가 과생 모델의 경우 기존에 신고한 모델에서 소비 효율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며 “이는 단순 기능의 향상이나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 소비효율과 광효율에 변화를 미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표준 LED조명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도로공사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차장은 “올해 이후 광효율은

110lm/W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조명등의 배열 간격을 10m에서 15m로 늘리는 등 렌즈를 통한 배광도 확인해야 한다”며 “컨버터의 성능과 제조기술에 맞춰 서지내성 기준이라 인 간은 4kV, 라인 접지 간에는 6kV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버터의 전체 전류조조파함율도 2020년까지 30% 이하, 2021년 25% 이하, 2022년 20%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엔트리연구원 상무는 “문제인 정부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며 LED조명이 정책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며 “올해 변경되는 기준과 규격에 대해 업계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경영 활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운수노동자 5명 중 4명 ‘설 연휴에도 출근’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33% 달해

설 연휴 동안 운수노동자 5명 중 4명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합원 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운수노동자의 77.7%는 연휴 중 하루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33%나 됐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4일을 모두 쉬는 운수노동자는 22.3%였다. 이는 금융·공공·사무노동자 85.9%, 제조업 80.5%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운수업이라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76%는 연휴에 출근해야 하는 이유로 ‘직업특성상 교대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답은 9%,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5%로 그리 많지 않았다.

한편 설 연휴에 일을 해도 할증 수당을 적용받는 운수노동자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평일근무 대비 50% 할증을 받는다는 응답은 37%, 100% 할증을 받는다는 응답은 17%로 총 54%에 불과했다.

설 상여금 또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4명 중 1명(23.4%) 풀이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설 연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이고, 특히 운수노동자들은 명절에도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연휴 기간 중 사고를 줄이려면 총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기자

**Baudouin**

**MOTEURS Baudouin**

**보두앙 엔진 !**

프랑스 역사와 함께 한 100년! 이제 한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인업 추가 예정]**

- 16M33D1910 비상 발전출력(1800RPM) 1750kWe 2018년 7월 예정
- 12M55D2150 비상 발전출력(1800RPM) 2000kWe 2018년 예정

12M 26 발전기용 디젤엔진			12M 33 발전기용 디젤엔진			16M 33 발전기용 디젤엔진		
엔진 모델	발전출력(kWe/1800RPM)		엔진 모델	발전출력(kWe/1800RPM)		엔진 모델	발전출력(kWe/1800RPM)	
	상용(Prime)	비상(Stand-by)		상용(Prime)	비상(Stand-by)		상용(Prime)	비상(Stand-by)
12M26D902	720	800	12M33D1320	1,100	1,200	16M33D1785	1,475	1,600
12M26D1012	800	900	12M33D1420	1,170	1,300			
12M26D1115	900	1000						

\*발전기 출력은 동체효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판매원 (주) 두산커머셜엔진**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124번길 37 TEL : 032.822.2840 FAX : 032.822.2866